

THE BRANN STORVING

기억의 사랑 70주년 라 나⁴

 K^{ey}more

162 의용 라니원

1. 사제관 및 수녀원 신축

1983년 9월 1일 김충우(보니파시오) 신부가 김음동본당 부임하던 날이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사제관 건물이 넓아 작은 비도 막을수 있었지만 사제관 안에서는 더 큰비가 내리고 있었다. 밤이 서도록 양동이 대야등을 들고 다니느라 잠을 이룰수 없는 밤이었으며 또눈으로 지낸 다음날 김신부의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밤을 지내 보았느냐? 건디어 났우 있었느냐? 라사편서. 너에게 사랑을 주느니 점소한 마음으로 사제관을 짓도록 하여라" 하였다며 비가 센 벽과 천장을 가르자나. 성전은 역시 1957년 6월 19일 기공하여 1958년 6월 9일 축성식은 거행바 있지만 이종기도 하고 석조건물에 백회로 치장 공사를 하여 물이 스미고 벽과 천장이 새로 안전에도 문제가 제기되어 성전 및 사제관을 신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본당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회의를 거듭하였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채 회해를 남기고 1984년은 맞으면서 새로히 사목회는 구성 발표하였다.

1) 사목협의회 위원 명단

총재: 김충우(보니파시오) 신부

전교수녀: 윤좌선(엘리아) 수녀

고문: 임은규(바르나바) 선우영환(베드로)

김기홍(루카) 음두은(다테오)

사목회장: 박찬길(다테오) 부회장: 이종운(토마스A)

부회장: 노원호(바스틀) 총무: 박희승(다니엘)

부총무: 오관용(라파엘)

사목위원이 구성되면서 한국 천주교 도입 200주년 및 시성식 행사를 행사요원은 선발하고 준비하기 시작 하였으며 부활절을 넘기려는 본격적으로 점진 행사에 변전을 기하였다.

200주년 기념대회 및 시상식 참가

1984년 5월 6일 드디어 여의도 광장에서 100여만명의
신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한국 천주교 도입 200주년 기념대회 및
103위 시상식이 전세계의 어둠속에 비사와 시상식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집전을 성대히 거행 되었다.
"이 땅에 빛을" 주제로 한 이 역사적인 행사에는 조선 교구
설립 150주년 기념대회 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참여 하였으며
김승룡 보좌 신자들은 이날 새벽 걸음고 아래서 전세 버스에
분승하여 대회장 입구에 도착 도보로 질서 정연하게 입장하였다.
- 미사도중 교황 성하에서 -

「이이 성사묵교하고 오랫동안 천주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수많은
우리 형제들의 위전도 들었으므로 감람이 없으신 천주성삼께
영광을 드리고 거룩한 신앙을 현양하며 그리스도 신자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권위로써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원부와 바오로 정하상의
101명의 한국순교자들은 성인으로 관정하고 결정하여 성령을
영부에 올리는 바이며 세계교회 안에서 이분들을 다른 성인들과
함께 정성되이 공경하기를 행하는 바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3인의 우리 신자들이 성인품에 오른 역사적인 대회를 마치고
귀가할때는 그 넓은 광장에 휴지하느 없이 깨끗한 모습에
메스공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전사를 아끼지 않았다.

대 행사를 끝내고 교우들은 다시 사제관과 수녀원 신복을
논디하게 시작 격론을 벌인지 3개월 만에 성전과 사제관은
신복하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성전을 신복하려면 일차적으로
성전과 사제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제관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관란으로 1984년 6월 10일 대지의 맨 끝쪽에
사제관 및 수녀원 건물 기공식을 가졌으며 동년 10월 10일
면적 145평의 사제관 건물을 준공하였고 사제관
이전으로 넓어진 공간에 성전부지를 제외한 대지에
비록기만 한 교육관은 동쪽 12월 30일 준공하였다.

2. 성전 신축.

김홍수 주임신부는 성전을 신축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성전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축기금 모금운동으로 성전
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2차 회금을 하기로 하고 교우들에게
신입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한쪽에서 성전건립을
반대하는 모임 성전보존위원회를 결성하여 성전건립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합동으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여러방면으로 설득하는 노력은 하였으나
모든것이 헛수เปล่า. 이윽고 어려운 시점에 어떻게 지은
성당인데 허물우가 있느냐? 아직도 멀쩡한데 왜 허무느냐며
반대를 거듭하였다. 또한 추기경님 앞으로 관원서도 내고
교구청에도 여러번 투서하였다. 어느날 교구 건축위원회에서
중재할 생각으로 성전건립위원회, 성전보존위원회 각
모임에 하고 당시 교구 관리국장 박신언 신부와 교구
건축위원회 몇분이 내방하였다.

오전 9시부터 서로의 의견도 듣고 한단계씩 합의해 가려
중요가 될 무렵 보존위원회측 한 교우가 질문이 있다하니
초보단계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다시 듣먹이기 시작하였다.
화가 치민 박신부는 아직까지 얘기를 다해놓고 이제 무슨
말이냐며 순간적으로 T레이블을 손으로 랍쳤는데 공교롭게도
T레이블에 놓였던 재현이가 랍치어서 보존위원회 회장앞에
떨어지는 분상사가 생긴것이다. 아나나 라를까 신부가

재벌이로 사람한테 권정묵이 앓느냐며 바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정말 난감한 일이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정도 하고 팔래기도 하였지만 의무가 내었다. 신부님도
사파하고 이리저리 설득해서 한참만에야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결과도 없이 회의를 아치고 말았다.

한참 어려운 시기에 박찬길 (다테오) 사목회장이 1985년 5월
개인사정으로 사임하고 부회장이던 노원호 (바스틀) 회장이
12월말까지 활동하였고 1986년 1월 20일 다시 회장단만 교체
사목회장 신예용 (요한) 부회장 장일원 (알베르토) 형제가
임명되었다.

1986년 2월 23일 김승중출신 신학생으로 이아스등으로 교직을
봉진 조용국 (프란치스코) 신부의 첫 미사가 봉헌되었고 3월 2일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신심활동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나회를 조직 초대회장에 조수신 (모니카) 씨를 임명하였다.
3월 4일 오랫동안 수고한 윤관선 (엘리아) 수녀가 이임하고
구정희 (라우레노) 수녀가 부임하였으며 3월 7일에는 유영인
(토마스) 보좌신부가 관동신부로 이임하고 김태수 (토마스)
보좌신부가 부임하였다. 매우 선한 인수도 끝내고 다시 성전신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본당 신자들의 숙원이던 성전신축(안)이
교구 전목위원회에서 1986년 6월 8일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6월 14일 성전 신축허가를 취득하여 성전신축에 전력하고자
한 다음 1986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부 여름캠프를
전원 청양국민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물에
빠져 떠 내려가는 꿈을 꾼바다 곳에서 허우적 거리는 것을
본 주일학교 교사 정태원 (알베르토) 군이 달려들어 학생을
밀쳐내고 자신은 익사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8월 7일 역사상 처음 본당광례로 치른후 주일학교는 물론
본당전체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주님안에 안식을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대망의 1987년을 맞으면서 사목협의회를 개회하여
성전전립을 위한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일하고자 결의
하였고 2월 22일 신자재교육을 위한 사문특별 강의를
마련하였다.

강사로는 황세웅 신부 - 십자가의 현대적 의미
송광섭 신부 - 성체와 교리
정양모 신부 - 예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는가?
김홍수 신부 - 믿는 분이 바보야

사문시기에 신자들의 감동을 제시한 영강의였다고 생각된다.
부활절을 넘기면서 성전전립기금 모금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전신자 참여를 호소할 즈음 가난한 생활을 하는 91세의
할머니께서 3년동안 모은 용돈 십만원을 봉헌하였고 삼십만원과
금복권을 익명으로 봉헌한 교우의 뜻이 알려지자 더욱 더
많은 신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김홍수 주임신부로
영영축일 축하예물 전액은 신축기금으로 회사하므로써 교우
들의 참여도가 고조되었다. 한편 사랑의 나눔 바자회
행사준비 위원들이 구성되므로써 교육관 지하에 사무실을 마련
본격적인 행사준비를 하여 마침내 1987년 9월 26-27일
양일간 서라벌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신자들이 기증한 기증품 코너에는 많은 인파가 물리고
있었다. 한편 서라벌고고 체육관에서는 대한노인회 성북지회
소속 노인 참여영을 초청하여 당시 민정당 성북지구위원장
김정래 국회의원, 성북구청장, 성북경찰서장이 참석관
가운데 신자들과 신자교미디언 방원우 등이 주연하여
성대한 경로잔치를 개최 많은 선물과 함께 성황리에 끝난
바 있으며 감동을 광복 바자회를 기폭제로 모금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성의껏 참여하였고 그렇지 못한 교우들은 신용협동조합에 1년 또는 2년짜리 적금으로 동참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각 본당에서도 많은 액수의 찬조금을 보내 주었고 본당내 각 단체별 헌금 바자회 수익금 등을 모두 합쳐도 한계가 있어 명동신협으로 우리 대회를 받기에 이르렀다. 성당이 축로 되어가는 모습에 용기를 얻어 서로 격려하여 모금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찬조금 내역

서울대학교 본당별 찬조금 31,780.000

본당 각 단체별 찬조금 80,915.000

구약백음식 바자회 수익금 159,300.880

하루래가 짧게만 느껴지고 완공되어 가는 신록 성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교우들의 기다림 속에서도 성전보존위원회 뜻도 겸손히 받아들여 더욱 전고라고 하자 없는 공사에 경복결과 1987년 11월 20일 새 성전을 준공, 드디어 새 성전에서 감격적인 첫 미사로 성음악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1988년을 맞아 첫 모임으로 성모회 임원개선이 있었다.

회장 소길자(안젤라) 부회장 이종남(가말라)

부회장 서부전(콘스탄시아) 총무 이경자(테레사)

서기 손인옥(고렷라) 회계 이충례(엘리사벳)

사순시기를 맞아 8주에 걸쳐 사순특별강의등 영신적인 신앙생활에 노력하였다.

1988년 4월 30일 그렇게도 오랜 숙원이던 새 성전이

김수환(스레파노) 추기경님의 주례로 반대라든 교우들도

모두 초청하여 전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축성식을

가졌으며 미사중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로패가

추기경님으로부터 수여 되었다.

공로때 수상자

신예용 (요한) 백희웅 (다니엘)

백병철 (미카엘) 장순권 (베드로)

특전 4월 30일을 기념하여 성전건립기금을 봉헌한
모든 분들을 위한 감사미사를 매년 봉헌키로 하였다.
이 모든것이 주님의 은총이요 교우들의 축복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기쁨 자체였으며 환희였다.
성전의 면적적은 859평 수용인원 1,200명의 대성전이였다.

잊혀진 이야기

1980년대 열심히 활동하는 젊은 자매가 있었다,
주말학교 교사로 레지오 안원으로 꾸러미 서기로
활동하던 최 병옥 (몬제스따) 자매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활동하고 봉사하고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교무금을 내기도 하였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교우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던 중 늦은 나이에 약혼을 하고 어느날 약혼자와
함께 남대문(송제문) 옆 대관빌딩 지하 1층에
식당을 찾았다, 식사를 막 하려고 할 참, 바로
그때 그 약정도 높은 대관빌딩 가스폭발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그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 된
몬제스따 자매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3년을,
동네 병원에서 1년을 합쳐서 10년을 투병하다
선종하였다. 요즘에도 문득 생각 날때가 있는데
몬제스따 자매의 부친 최 봉식 (파지아) 씨는 93세의
연세에도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고 제신제 별때마다
옛일이 생각이 나 안타깝기만 하라.